

대선주자들이 그린
대한민국 청사진

국민소득 4만弗…7대 경제대국 진입

이명박



“이번 대선에서 국민은 정치보다는 경제를 택할 것입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경제 우선형 리더로 평가받고 있는 대선 주자답게 대한민국의 사회 전반을 흐르고 있는 시대정신으로 ‘경제 발전’을 꼽았다.

이 전 시장은 “지금 세계의 조류는 이념의 시대는 가고 경제의 시대가 도래한 상황”며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불균형과 지역 간 경쟁 등 대한민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경제 발전을 제시한 이 전 시장은 “잘 살게 되면 지역 갈등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고 단순 명료하게 정리했다.

경제 발전으로 모든 지역이 잘 살게 된다면 호남과 영남의 갈등도 완화될 것이며 돈을 벌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일도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념의 시대 가고 경제의 시대 도래

北 핵포기 개방…국민소득 3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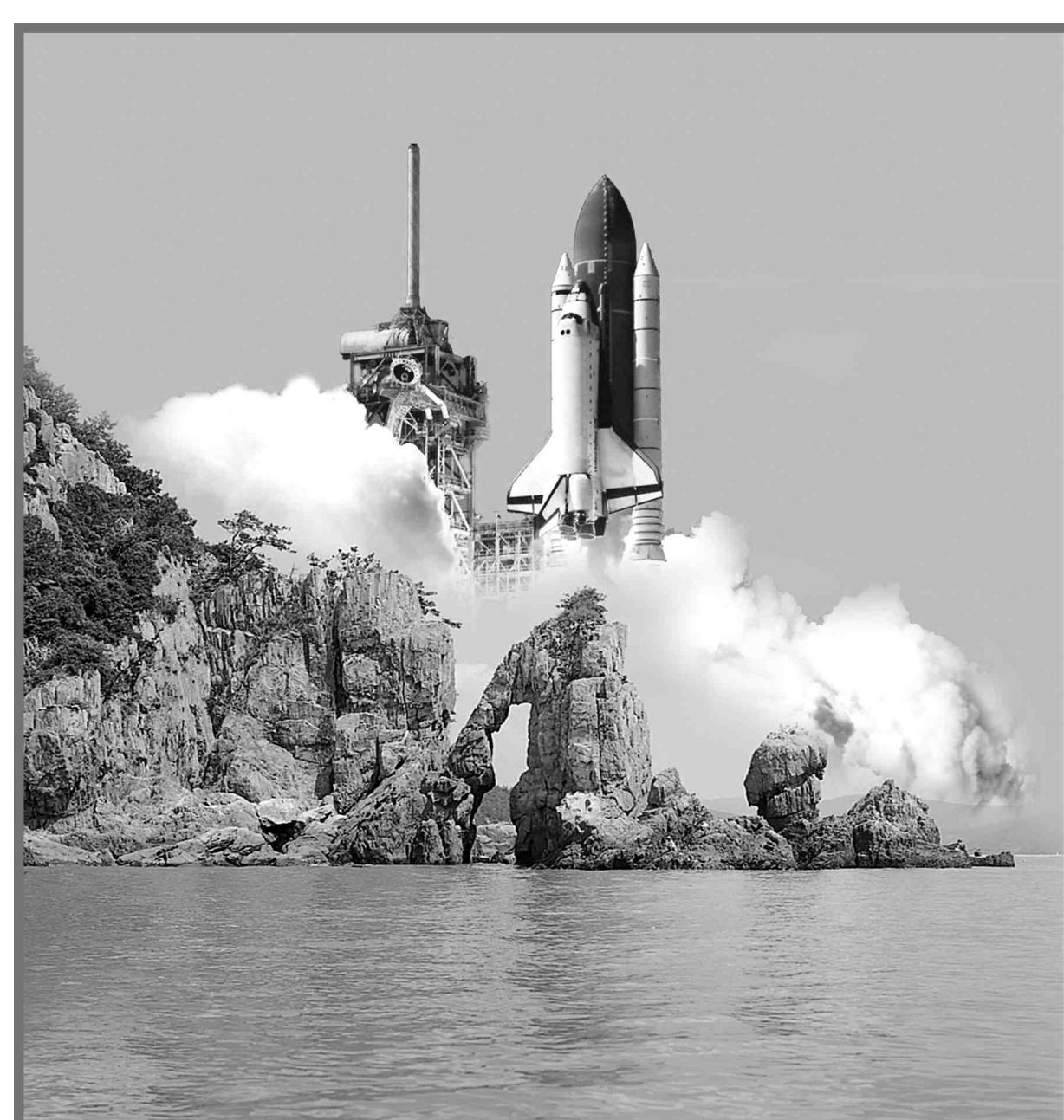
한반도의 평화도 결국 경제 문제라고 진단한 이 전 시장은 “남·북한이 함께 잘 살게 된다면 누가 전쟁을 시도하겠느냐”고 반문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 정책을 펼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천 달러에 이르도록 할 수 있으며 통일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미래는 경제력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며 “내년 선거에서 국민은 결국 정치보다는 경제를 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관련, 이 전 시장은 “국민이 잘 사는 따뜻한 사회,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며 “10년 안에 7% 성장, 개인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 대국 진입으로 요약되는 ‘대한민국 747 플랜’으로 꿈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성장 동력에 대한 질문에 이 전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사회 분위기’ 조성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



“이제 화합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대한민국을 흐르고 있는 시대정신으로 ‘선진화’를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발전해 오는 과정을 보면 ‘산업화’가 시대정신이었던 때도 있었고, ‘민주화’가 시대정신이었던 때도 있었다”며 “지금의 시대정신은 대한민국을 당당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는 ‘선진화’로 정의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박 전 대표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에 충실향하면서 지도자가 윤리를 리더십을 발휘할 때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실현된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박 전 대표는 ‘7%’의 경제성장을과 5년 동안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3천달

규제 없고 일자리 넘치는 일류 선진국

대전~대구~광주 테크노밸트 성장축

또한, 지역과 계층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시켜 이를 성장의 에너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 전 시장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를 꼽았다.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을 가로 지르며 진행되므로 경제적 효과는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등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부가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이와 함께 선진국 진입의 갈림길에 서있는 대한민국이 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안으로 첨단·미래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세계 첨단·미래산업의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50만평 규모의 과학 비즈니스 도시 건설도 제안했다.

호남에 제시하는 비전으로 이 전 시장은 “호남을 잘 살게 만들어 지역 갈등을 없애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 보장되는 교육제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또한, 감성이나 문화처럼 소프트한 자원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문화’를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과 서해안 사이의 바다 위에 철로를 놓는 열차페리 구상을 실현, 물류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간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호남의 미래 비전과 관련, 박 전 대표는 “중국과 연결된 서해안 중심의 내륙지방 개발의 핵심지역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면의 바다 연안을 잇는 U자형 국토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박 대표는 “전남은 서해안과 중국을 잇는 중심지로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목포나 군산을 열차페리의 출발점으로 연결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대전·대구·광주를 잇는 3각 테크노밸트를 성장축으로 삼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근태



“평화가 밥입니다.”

한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정신에 대한 질문에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평화와 번영을 통한 민생부국’을 제시했다.

김 전 의장은 한반도의 긴장을 곧 경제 적신호가 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오기 때문에 수구 냉전의 그늘을 걷어내고 평화체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또한 “민주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제적인 민주화를 통한 따뜻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문제가 남았다는 것이다. 그는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따뜻한 시장 경제를 구축,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주자로 제시하는 대한민국 청사진과 관련, 김 전 의장은 “평화와 번영의 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제 민주화…‘따뜻한 시장경제’ 구축

‘평화와 번영의 르네상스’ 시대 활짝

조를 구축해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호남의 미래 비전과 관련, 김 전 의장은 호남의 미래 비전은 민주적 역량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정의했다.

김 전 의장은 또한 “DJ 정부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시도됐던 호남의 발전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한·미 FTA 협정 체결로 호남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호남이 바짝 긴장해야 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등의 모델을 따라가기만 해서는 안되며 풍부한 땅과 바다가 있는 호남만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체적인 호남 발전의 방향론과 관련, 김 전 의장은 “면피용으로 호남의 현안사업을 열거하며 호남의 미래라고 말하지 않겠다”며 “호남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은 호남을 찾아 호남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 고흥군이
광주일보 창사 5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 흥 군 청

군수	박병종	농업기술개발과장	김오휴
부군수	이종신	간척사업소장	조성필
경영기획실장	박정화	종합문화회관장	임선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	우주센터지원소장	박준희
보건소장	장용주		
자연환경복합사업단장	김경호		
행정지원과장	임홍재		
재무과장	공현복		
문화관광과장	황상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수		
사회복지과장	장영식		
환경보전과장	양태호		
친환경농정과장	박승수		
해양수산과장	임창호		
경제산림과장	김덕빈		
건설개발과장	우운기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임진		
열린민원과장	김상신		
농업자원개발과장	유인석		

각급 기관 장

고 흥 · 보 성 국 회 의 원 신 중 식	장 김 학 영
고 흥 경찰서 서장	장 김 학 영
한국전력공사	지점장 조영권 외 직원일동
고 흥 지점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송기창 외 직원일동
고 흥 지사	
농협고흥군지부	지부장 이수영 외 직원일동
고흥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류성진 외 임직원일동
팔영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정조 외 임직원일동
흥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송기재 외 임직원일동
두원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송기두 외 임직원일동
풍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고영재 외 임직원일동
고 흥 종합 병원	이사장 류형식 외 임직원일동
윤호 21 병원	원장 이윤호 외 직원일동
남옥건설대	표이윤남